

# 전남 종합건설사 5곳중 1곳은 부적격업체

## 자본금 미달·기술자 부족·자료 미제출... 전화·사무실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30곳

전남지역 종합건설업체 5곳 중 1곳은 페이퍼 컴퍼니 등 부적격업체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상 전화번호가 다른 지역에 등록된 업체 527곳의 실태조사를 한 결과 97곳은 부

적합, 27곳은 전출과 말소 등 회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도내 42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25.2%인 107곳이 자본금 미달, 기술자 부족, 자료 미제출 등 부적격 업체로 조사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실 업체들은 서류상 사무실만 있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가 30곳, 통신설비 미비 등의 업체가 67곳이었다. 조사한 업체의 80%는 사무인력 상시근거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우편물 수령을 위해 주 1~2회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법상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 지사·지점을 낼 경우 등기를 해야 하나 367곳이 미등기 상태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도의회 송대승 의원이 종합건설업체는 54%인 508곳이, 전문건설업체는 32%인 744곳이 전남

이 아닌 광주 등 다른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건설업체가 실제 사무실은 광주와 서울 등 수도권 등에 두면서 본사 주소를 전남에 등록한 이유는 도와 시군이 발주하는 입찰 참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페이퍼 컴퍼니가 난립하는 것은 일명 '운찰제'(運札制)로 불리는 적격심사입찰제도가 낙찰금액에 유사한 도금액을 써내기 위해 여러 개 회사를 동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페이퍼 컴퍼니는 영입점

지 처분(6개월 이내), 용도 부적합 업체 및 지정설치 미등기 업체는 지정명령과 보완요구를 할 예정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무인력 상시근거 독려와 KISCON 상 전화번호도 정비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난 제도상 문제점은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종합건설업체는 927곳이며 이번 조사는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4개반 16명이 투입돼 이뤄졌다. /오광록기자 kroh@



기아차는 6월 한 달 동안 스포티지R과 뉴쏘렌토R를 출고한 개인고객에게 유명 워터파크 7곳의 입장권을 1만 원에 제공하는 '스포티지R·뉴쏘렌토R 더위탈출 이벤트'를 진행한다. <기아자동차 제공>

### 6월 출고 고객에 '1만원 워터파크' 기아차 더위탈출 이벤트

기아자동차가 스포티지R과 뉴쏘렌토R 고객의 여름휴가를 지원한다. 기아차는 6월 한 달간 두 차종을 출고한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전국 유명 워터파크 7곳의 입장권을 1인당 1만 원에 제공하는 '스포티지R·뉴쏘렌토R 더위탈출 이벤트'를 마련했다. 이벤트 참가 고객 전원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속초 설악워터피아 ▲전안 테인 워터파크 ▲덕산 스파캐슬(천천향) ▲충남 아산 스파비스 ▲나주 중흥골드스파 ▲경주 블루원 중 한 곳의 워터파크 입장권을 1인당 1만 원(최대 4명)에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m)에서 하면 된다. /입동록기자 exian@kwangju.co.kr

## 올 성장률 2.3%→2.6~2.8%

### 정부 전망치 상향 검토

정부가 이달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3%에서 2.6~2.8%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2.8%)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수치는 아시아 주요 10개국 가운데 9위에 그친 것인데다 내년 전망치(3.9%) 역시 끌어 올려서 한국경제가 '아시아의 용(龍)' 대열에서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9일 "이달말에 발표할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추경에

다른 정책 효과, 금리 인하 영향, 최근 실물 경제 지표 등이 두루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0%에서 2.3%로 0.7%p 하향 조정했었다. 이는 4월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내면서 제시한 정책효과 0.3%p, 이후 한국은행의 5월 '깜짝' 금리 인하(0.25%p)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4·1부동산종합대책, 벤처활성화 방안, 투자활성화 방안 등 최근 잇따라 내놓은 정책들도 실물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해외 투자은행 등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2.8%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답했다. 국제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예상하는 올해 성장률은 2.6%다. /연합뉴스



정중앙 포스코 회장이 지난 7일 광양제철소에서 세계 최대 규모로 재탄생한 1용광로에 불을 지피고 있다. <포스코 제공>

## 광양제철 세계최대 용광로 불 지폈다

### 자체기술 개수공사 6000㎡ 규모 제1고로 화입식

포스코 광양제철소 1용광로가 세계 최대 규모로 재탄생했다. 포스코는 지난 7일 광양제철소에서 108일간 자체기술로 개수공사를 마친 1용광로에 불을 지폈다고 밝혔다. 1용광로는 지난 1987년 4월 처음 3800㎡ 규모로 준공된 뒤 3950㎡ 규모를 거쳐 이번에 6000㎡ 규모로 재탄생, 기존 최대규모였던 중국 사강 그룹의 1용광로(5800㎡)를 제치고 세계 최대 용광로로 올랐다. 용광로는 한번 건설하면 통상 15년간 한 번도 불을 꺼뜨리지 않고 가동된다. 수명이 다하면 용광로를 전면 재건조하는 개수공사를 하게 된다.

이번 광양 1용광로는 노체 손상을 줄여주는 새로운 냉각시스템을 적용, 용광로 수명 연장이 기대되며 고온의 환원가스 사용효율을 증대시켜 연간 1000여 원의 연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용광로는 내용 증대로 연간 328만톤에서 548만톤으로 늘어 단일 용광로 기준 세계 최대 생산량을 기록할 전망이다. 조강 생산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포스코는 1용광로 개수로 늘어나는 양질의 쇳물을 비싼 고철 대신 사용해 제조원가를 낮추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데 활용해 고급강 비

율을 대폭 높인다는 복안이다. 1용광로 개수와 생산조정등 증산되는 쇳물량은 하루 2000t 가량으로, 제강공정에서 첨가되던 40여만t의 고철을 대체하면 300여 원 가량의 제조원가가 절감된다. 한편, 심각한 올 여름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철강업체가 대대적인 절전에 나선다. 포스코는 작업을 줄이고 자체 발전을 확대해 기존에 계획한 것보다 38만kwh를 더 절감하기로 했다. 올해 봄(3~6월) 사용량과 비교하면 철강협회에 밝힌 106만kwh 가운데 62만kwh를 줄이는 셈이다. 이를 위해 스테인리스 공장과 하이밀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전기료를 교차 가동한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 광주은행 노조 "낙하산 인사 강력저지"

광주은행 노동조합은 9일 독자생존과 분리매각 민영화 쟁취를 위해 총력 투쟁 방침과 함께 '낙하산 인사 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계획이 6월 말로 예상되는 만큼 인수 주체와 지배구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광주은행의 미래가 달렸다"며 "광주·경남은행 공동투쟁본부를 발족하고 광주시·광주상공회의소 등과 연대해 독자생존과 분리매각 민영화 쟁취를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어 "민영화에 온 힘을 기울여 할 시기에 최고경영자(CEO) 선임 논란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항간에 떠도는 우리금융지주 출신의 낙하산 인사는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역사와 조직문화를 공감하는 광주은행 출신 행장이 흐트러진 조직을 정비하고 올바른 민영화 추진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다면 사생활 단의 투쟁을 전개하고 당사자도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전남 농가 고령화율 전국최고

농가인구 10년전 비해 22%·경지면적 5% 줄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호남지역의 농가, 농가인구, 경지면적 등이 많이 감소했으나 양파, 가을배추, 사과 등 3개 품목은 경지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호남지방통계청은 9일 '2002~2012 호남지역 농업생산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2년 호남지역 농가는 32만677가구로 10년 전의 37만9750가구보다 15.7% 감소했다고 밝혔다. 농가인구는 77만9927명으로 10년 전의 100만5211명보다 22.4% 감소, 경지면적은 58만7천371ha로 10년 전의 61만6천634ha보다 4.7% 감소를 각각 기록했다. 호남지역 경지면적 감소 요인은 도로, 철도 등의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산업단지 조성 등이다. 특히 2005년 이후 호남지역에서 경지가 있는 농가는 13.5% 감소한 반면 10ha 이상 농가는 81.6% 증가하는 등 농가당 경지면적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호남권 내에서 전남지역의 농가경영주와 농가인구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남의 고령화율은 2007년 51.9%

### 로또복권 (제549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29	31	35	38	40	44	17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760,805,047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67,078,288	35
3	5개 숫자 일치					1,578,844	1,487
4	4개 숫자 일치					50,000	71,700
5	3개 숫자 일치					5,000	1,213,077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창립1주년 기념

#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기원 시민한마음 걷기대회



“행복한 창조도시”의 완성을 위해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은 창립 1주년 기념행사로 '2019년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광주유치'가 꼭 이루어지도록 150만 시민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는 '시민 한마음 걷기대회'를 개최하오니 부디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길무** 시민캠페인대외 총비위원장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상임의장  
(사)광주국제공항사생공민협의회 대외홍보위원장

시민걷기대회 준비위원회: 김상덕, 김시권, 김재두, 이길행

- ▶ 일 시: 2013년 6월 22일 (토)
- ▶ 현장접수: 오전 10시 (개회식 10시30분)
- ▶ 장 소: 광주 상무시민공원
- ▶ 참가비: 무료
- ▶ 자원봉사·단체 참가신청 [www.ngtv.tv](http://www.ngtv.tv)
- ▶ 문의: 062-531-0857

오전 10시부터 현장접수 및 배번호 배포와 함께 다채로운 볼거리와 먹거리 등 식전행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시민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바랍니다.

## 참가자 전원 기념품, 간식제공! 경품 추첨!

주최 ▶  (사)반부패국민운동 광주광역시연합

후원 ▶  (재)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광주국제공항사생공민협의회

 광주광역시새마을회

협찬 ▶  한우저조금관리위원회

 **궁전제과**